

2024-2 TUHH (Technical University of Hamburg)

교환학생 활동보고서

공과대학 건축학과 오승은

공과대학 교환 프로그램의 함부르크 공과대학교에 지원하기에 앞서 선배들의 교환학생 활동보고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제 보고서도 TUHH나 공대 교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성해봅니다.

교환교 : Technical University of Hamburg (TUHH)

교환기간 : 2024.10.15.-2025.03.31. (24/25WS)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공부하며 생활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외여행과 달리, 비교적 오랜 시간 한 지역에 머물며 그곳의 문화를 직접 체득하고 언어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관심 있는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고, 독일어를 배울 수 있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독일에서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한 함부르크에 있는 학교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2.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독일 교환학생으로서 비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쉥겐 지역 90일 무비자 조약을 활용해 비자 없이 독일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90일이 거의 만료되는 12월이 되어 비자를 신청했는데, 크리스마스와 신년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1월 말에야 비자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기관측에서 제 비자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겨 다시 비자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2월 13일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함부르크는 대도시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비자 절차나 행정 업무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2월에 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때, 비자 발급을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express 비자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 처리 시간보다 더 빠른 3주 내외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독일을 벗어나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휴가 중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발급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비자는 주한 독일 대사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저는 함부르크 공과대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acceptance letter)를 6월 27일에 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예약 날짜를 미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숙사 지원 방법

Studierendenwerk Hamburg는 함부르크 내 모든 대학교의 학생 기숙사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교환교에 application을 작성하는 기간에 기숙사 신청도 하라고 안내 메일이 옵니다. TUHH 학생들은 주로 Harburg지역에 위치한 세 개의 기숙사 중 하나에 배정됩니다. 저는 Studierendenwohnanlage Harburg에 배정받았는데, 세 기숙사 중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생활하기도 비교적 수월한 곳이었습니다. 기숙사 배정 결과는 6월 말쯤 이메일로 통보되었으며, 이후 일주일 내에 기숙사비와 보증금을 사전 입금하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때 입금을 하지 않으면 배정된 기숙사 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함부르크에서 사설 기숙사나 WG(공유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600유로 이상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기는 보통 10월 중순부터 시작하며, 저는 24-2학기 기준으로 9월 15일부터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입주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 계약 기간은 9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

기숙사비

저는 3인이 각자 방을 사용하며 주방과 화장실 1개를 공유하는 플랫(flat)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숙사비는 2024년 12월까지 350유로였으며, 2025년부터 390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Tuition fee

독일 대학의 한 학기 등록 비용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면 Deutschland semester ticket을 발급 받습니다. 이 교통티켓으로 독일 전역의 모든 대중교통 (고속열차 IC, ICE 등 제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티켓으로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지하철(S bahn, U bahn) 등을 타고 다녔습니다. RE(지역열차)도 무료로 탑승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함부르크 근교 도시인 브레멘, 뤼네부르크, 그리고 슈베린도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Tuition fee를 납부하면 보통 일주일 후 학교 계정이 생성되며, 학교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3.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함부르크 공과대학교(TUHH)는 두 가지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TUNE

10월 초, 학교 계정을 받은 후 TUNE에 접속하면 해당 학기에 개설된 강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과목명, 수업 일정, 강의실, 영어 강좌 여부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공 과목은 선착순이 아니지만, 교양 과목은 선착순 등록제입니다.

Student IP

서울대학교의 ETL과 유사한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 교수님이 매주 강의 자료(PPT 등) 및

공부에 필요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또한, 시험 일정 및 휴강 공지도 주로 이곳을 통해 안내됩니다.

시험 등록 방법

독일 대학교에서는 10월에 수강 신청(수업 등록)을 한 후, 시험을 보기 위해 별도로 시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시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성적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24-2학기 기준 시험 등록 기간은 12월 1일 ~ 12월 14일이었으며 TUNE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시험 등록 후 취소도 가능하며, 시험 날짜의 이틀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함부르크 공과대학교(TUHH)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과정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건축학과 학생이지만 토목공학(Civil Engineering) 전공 수업을 수강할 계획이 있었는데, 학사 과정에서는 영어로 제공되는 과목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영어로 들을 수 있는 과목 중 적절한 난이도의 강의를 선택해야 했고, 그 결과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전공 3학기 학생들이 주로 듣는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1.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ecurity

인터넷 보안의 전반적인 개념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암호학, 악성 소프트웨어, TLS, 방화벽 등의 개념을 다루며, 깊이 있는 학습보다는 주요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수업이 있었으며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Lecture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매주 수요일마다 출석의무인 Exercise 수업에서는 리눅스를 통해 배운 내용을 연습했습니다.

2. Databases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개념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기본 지식 없이 수강했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Relational Model, SQL, 최적화 등에 대해서 배우며, 컴퓨터를 이용한 기말시험 한번으로 성적을 평가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격주로 목요일에 수업이 있었으며 출석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 동영상을 제공하여 복습하기 편했습니다. Exercise 수업은 Lecture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여 배우는 수업으로 평일 중 하루에 한번 씩 수업이 열리니, 원하는 요일의 수업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3. Computer Science for engineering students

이 수업은 모든 공대 전공 학생을 위한 컴퓨터 과학 기초 수업으로, 독일어와 영어로 개설됩니다. 저는 영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컴퓨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C++ 코딩을 포인터와 리스트까지 배웁니다. 학기 중 3번의 Trial Exam(오픈북 진행)이 있으며, 후에 최종 시험 점수에 10% 보너스 점수로 반영됩니다. 시험이 3월 27일에 진행되나, 그 전에 돌아가는 교환학생은 미리 Oral exam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 German Course A1.2 (언어)

10월 마지막 주부터 매주 월요일 (16:00-19:00) 3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인텐시브 코스의 독일어 선생님과 같은 분이였으며, 심화된 독일어 문법, 동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생활하는 동안 도움이 되었으며 독일어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마지막에 기말 시험 1번으로 성적을 내며, 매주 열심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엄청 어렵지 않았습니다.

5. Intensive German Course A1.1 for Exchange Students (언어)

개강 전 2주 동안(10일간)매일 4시간씩(14:00-18:00)진행된 인텐시브 독일어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교환학생들과 함께 듣는 언어 수업으로, 수업을 통해 친해지거나 얼굴을 익힐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기본적인 독일어 단어와 문장을 습득했습니다. A1.1 외에도 다양한 레벨이 개설되었으며, A1.1은 초보 단계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므로, 자리를 원한다면 8월 말에 오는 신청 안내 메일을 잘 확인하여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들은 전공 과목들은 대부분 기말 시험 한 번으로 성적이 평가되었지만, 교환학생 친구들이 들은 경영 과목은 학기 중간에 치러지는 시험이나 발표로 인해 상대적으로 빨리 시험이 끝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4. 생활

1) 가져오면 좋은 물품

제가 가져온 물품 중 유용했던 것들은 접이식 전기 포트와 1인용 전기 장판이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와이파이 공유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했는데, iptime 공유기를 가져온 덕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리를 자주 할 계획이라면 코인 욕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블록 국을 가져갔고, 밥이랑 함께 먹기 좋았습니다. 다양한 아시안 음식은 센터에 있는 아시안 마트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옷은 경량 패딩을 챙겨왔고, 비가 자주 오는 함부르크에서 10월까지의 필수템이었습니다. 저는 방수 스포츠 패딩을 자주 입었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독일의 마트 식재료 물가는 매우 저렴해 요리를 자주 해 먹으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외식보다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한식이 먹고 싶을 때는 한식당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학생식당(멘자 Mensa)

함부르크 공과대학교에는 하나의 학생식당이 있으며, 서울대학교 학생식당과 비슷하게 운영됩니다. 매일 정해진 메뉴가 3-4가지 있고, 무게별로 가격이 측정되는 파스타 바와 샐러드 바도 제공됩니다. 메뉴 가격은 대체로 3유로~6유로정도였으며, 오픈 시간은 오전부터 15:30까지로, 저녁 식사는 어렵습니다. 피자 코너에서는 1유로대로 한 조각을 구매할 수 있으며, 맛있어서 추천드립니다.

통신

저는 VODAFONE매장에서 프리페이드 유심을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한 달에 15유로로 20GB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여행 시에는 데이터가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계약 요금제를 쓰면 귀국 전 해지하는 게 번거로워 프리페이드 유심을 선택했습니다. 다만, 스위스에서는 로밍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에서는 로밍이 잘 되었습니다.

은행

저는 한국에서 N26을 미리 가입하고, 독일에 도착한 후 독일 핸드폰 번호를 만들면서 계좌를 활성화했습니다.

슈페어konto

재정증명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슈페어konto(막힌 계좌)는 6개월 동안 요구되는 금액을 6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금하는 형식입니다. N26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했습니다. 슈페어konto는 엑스파트리오라는 사이트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의료

교환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독일의 공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며, 이 중 TK 공보험을 선택하여 슈페어konto를 만들 때 함께 가입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보험비는 한 달에 144유로입니다. 한국에서 보험 가입 후, 독일에 도착하면 보험이 활성화되며, 우편으로 오는 보험카드를 지참하고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세탁시설

기숙사에는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가 제공되며, 세탁은 1회에 3유로, 건조는 2유로입니다. 온라인 결제는 appwash 라는 앱을 통해할 수 있습니다.

왓츠앱

기숙사에 입주하면, 기숙사 내 왓츠앱 그룹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숙사에서 발생한 문제나 공지사항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교통

기숙사와 학교가 위치한 Harburg는 함부르크의 중심지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 S반을 타고 20분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서울대 재학중에도 항상 20분씩 버스를 타고 다닌 경험이 있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정문과 후문이 있으며, 후문이 더 가깝고 버스도 자주 와서 저는 항상 후문에서 내렸습니다. 기숙사에서 Hamburg-Harburg 기차역까지 도보로 5분거리에 있어 기차를 탈 때 매우 편리했습니다.

생활용품 구매 및 중고거래

가까운 Phoenix Center나 Harburg Arcade에는 Woolworth, 1 Euro Shop등 저렴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특히 DM은 제가 자주 이용한 곳으로, 화장품뿐만 아니라 휴지, 주방용품, 욕실 세정제, 청소 도구, 비타민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한곳에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Ikea는 함부르크에 두 군데 있습니다. Altona지역의 Ikea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로 가깝고, Moorfleet의 Ikea는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Bauhaus라는 철물점에서는 커튼 봉등 필요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추가로, Kleinanzeigen라는 중고거래 앱을 이용하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있어서 유용했습니다.

5. 학교 및 여가 생활 (여행)

저는 주말을 이용해 학기 중에도 여행을 자주 다녀왔습니다. 10월 말 서머타임이 끝난 후 부터는 유럽 전역이 날씨가 눈에 띄게 안 좋아졌고, 맑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함부르크는 3시에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은 8월-10월 달에 몰아서 미리미리 여행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일 내에서는 DB 기차를 이용해 도시 간 여행을 자주 했습니다. 또한 함부르크 공항에는 라이언에어가 취항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니기 편리했습니다.

함부르크는 독일 북부에 위치해 있어서, 플릭스버스를 타면 6시간만에 덴마크 코펜하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독일 여행 중에 유용했던 팁은, 구글 맵보다는 DB 앱을 활용하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점입니다. 기차의 연착이나 플랫폼 변경, 취소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또한 기차를 예매할 때, 일정이 확실하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가까워질수록 가격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소규모 상점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약간의 현금이나 동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 보관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1유로 또는 2유로 동전이 필요합니다.

함부르크에 머무른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여행지는

1. 함부르크에서 플릭스버스를 타고 6시간만에 갈 수 있는 코펜하겐은 독일과는 또 다른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방문했는데, 여유로운 분위기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더욱 편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디자인과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 이곳에서 볼 전시와 건축물이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2. 함부르크에서 기차로 1시간 반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베를린은 건축학과 학생이라면 꼭 가봐야 할 현대 건축물이 많은 도시입니다. 베를린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와 현대적인 건축물이 많아, 독일의 서울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건축물과 문화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함부르크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Hamburger Dom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열리는 Hamburger Dom은 함부르크에서 꼭 가봐야 할 대형 놀이공원입니다. 놀이기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서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놀이공원의 느낌이라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시청 앞 크리스마스 마켓

시청 앞에서 11월 중순부터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독일식 음식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마켓마다 지역별 크리스마스 마켓 컵을 판매하는데, 다양

한 마켓의 컵을 모으는 재미도 있습니다.

6.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며 제가 들은 전공 과목들은 대부분 기말 시험 한 번으로 성적이 평가되었지만, 교환학생 친구들이 들은 경영 과목은 학기 중간에 치러지는 시험이나 발표로 인해 상대적으로 빨리 시험이 끝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환학생 생활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막상 경험해보니 길고도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이 경험이 제게 무엇을 남겼는지 완전히 정리하거나 정의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인생을 바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떠나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유럽과 독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도에 맞춰 살아보고, 배려하는 문화를 배우며, "느려도 괜찮고, 달라도 괜찮다"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체득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을 탈 때면 많은 유모차들과 휠체어를 보면서 평소에 한국에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알았던 것들에 대해 깨닫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고, 특히 비자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전공과 다른 분야의 수업을 듣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덕분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독일 대학교의 공부 방식과 분위기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독일 학생들의 자세를 배워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남은 시간 동안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견문을 넓혔고,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 건축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추후 함부르크 공과대학교 교환을 고민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은 detrevni@snu.ac.kr 로 메일 보내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외생활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이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대 교육연구재단 및 공과대학 국제협력실과 공과대학 국제협력실 담당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